

# 세계곡물수급에 적신호

<日 本>



소련이 다시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소맥, 옥수수 등 곡물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자, 세계의 곡물수급에 “赤信號”가 커졌다. 이로서 3년전의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재연될 정세다. 일본은 소맥, 옥수수, 대두 등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 8월 5일 방소, 방미여행을 떠난 “아베”농상도 양국 수뇌와의 회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식량생산 실정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다. 「예상 외로 어려운 외유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아베농상은 방소길에 오르며 말하고 있다. 소련의 「이시코프」 어업장, 미국의 부츠농무장관의 초대를 받고 친선방문 하였지만, 소련의 곡물 대량매입 때문에 방문의 성격도 안정적인 식량공급체제 확립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다. 소련의 곡물대량매입이 표면화된 것은 7월 9일이었다.

미 농무성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7월말까지 소련은 이미 미국, 캐나다, 오스트라리아에서 소맥 795만톤, 대맥 110만톤, 옥수수 450만톤, 합계 1,355만톤의 곡물을 매입하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980만톤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작년 2월이래 저락세(低落勢)를 보여온 소맥의 국제가격(시카고상장, 현물)은 6월평균 1부셸(24.2kg)당 2.93\$에서 3.8\$까지 상승했다.

이와같이 세계의 곡물수급에 황신호가 커지게 된 소련의 곡물생산실정은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정세에 의하면 소련의 곡물작황은 주요한 곡창지대인 「불가」강 유역, 「우크라이나」남부등이 고온과 한발로 연초의 생산목표 2억 1,500만톤을 대폭하회한 1억 8,500만톤 정도가 되어 소련은 대흉작이 될 것으로 72년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며 동구제국도 대흉수의 피해로 곡물생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련이 동구제국에 대하여 소맥의 공급협정을 금년에는 취소하고 타국에서 매입토록 정하고 있다. 소련은 제 9차 5개년

계획(71~75년)에서 축산물의 대폭증산을 최우선 목표로하고, 사료곡물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개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곡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 농무성의 예측으로는 최종적으로 2,000만톤 이상을 매입할 것으로 본다. 72년 당시 소련은 2,750만톤 정도의 곡물을 대량, 미국, 캐나다 등지로부터 매입함으로써 국제곡물시황은 폭등, 식량위기 소동을 초래하였었다. 미국 국내에서는 빵의 매매가격이 폭등하고 대두의 수출금지까지 과급되었다. 금년 공급국인 미국은 대풍작이 예상되며, 미농무성의 7월 1일 현재의 수확예상으로 소맥이 전년비 22%, 옥수수 30%로 대폭증산될 것으로 보고있다. “부츠”농무장관도 미국 곡물비축의 과잉재고를 피하기 위해 소련의 대량매입을 허락한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유도 7월이래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아이오아」등 서부곡창지대에서 계속 한발이 예상됨에 따라 8.11일 발표된 수확예상은 지금까지의 대풍작예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외에 캐나다도 금년을 평년작으로 보고 있으며 「오스트라리아」도 평년이하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도 한파로 감산이 틀림없이 세계의 곡물수급은 「예상을 불허할 상황이다」 “아베”농상도 방소, 방미를 기회로 최근의 식량정세를 탐색하고 72~73년에 걸쳐 식량위기소동의 재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정공급체제의 확립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부츠”농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전통적 수입국인 일본으로서는 안정공급의 보증을 받고져 정부간 협정을 맺으려 하였다. 여하튼 소맥,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베”농상으로서 필사적이다. 8.12일 “아베”농상과 부츠 미 농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소맥 300만톤, 대두 800만톤, 옥수수, 밀 사료곡물 800만톤등, 합계 1,400만톤을 안정공급 받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日本은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日本 産業經濟新聞에서>

# 달걀 1인당 소비량 세계최고

<이스라엘>

세계에서 1인당 달걀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매년 1인당 413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서독 소비자 위원회가 발표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발표하면 세계 제 2의 소비국

은 미국으로 290개를, 3위는 285개로 서독이라고 발표했다.



## 가금육생산 전년보다 감소

<독 일>

독일의 가금육 생산은 전년도보다 8%이상이나 감소했음이 식품국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생산량은 전년도에는 289,000톤에 비해 265,000톤이었다. 이 가금육의 총량중 부로일러육의 생산은 1973년에 189,000톤에 비해 170,000톤으로 감소했다. 수입량은 266,000톤에서 277,000톤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총이용량은 555,000톤에서 542,000톤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소비는 국민 1인당 8.68kg~9kg으로 전년도보다

약간감소했다.

이에 반해 산란계가 증가되었는데 조사의 의하면 1973년 10월 수준에 비해 4.2%나 증가했다. 부로일러는 8.3%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다. 1974년 1월에서 10월까지 부로일러 초생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종란은 1973년 동기(同期)에 비해 7.7%가 감소했으며 산란계 초생추를 생산하기 위한 종란은 7.3%가 증가했다.

시장과 벨기에 시장의 침투는 프랑스가 영국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최근의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고 있다. 생산을 점차 상승되고, 국내시장에 계란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생산가치는 1973년 수준의 생산자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게 변동이 없다고 한다.

## 부화장의 폐기물로 사료화

<미 국>

미국에서는 산란계에 대해 부로일러나 산란계 부화장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가공 급여한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이 폐기물은 이것은 간단음, 93°C의 회전건조기에서 열처리한 결과 98%건물(乾物)에 22~32%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한다. 산란계에 8~16%의 폐기물 사료를 급여한 결과 사양표준과 동등한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 한다. 아미노산과 칼슘의 측정결과 대두박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 미농무성과 곡물안정공급 약속

<일 본>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한바 있는 일본의 "아베"농상은 12일 미농무성에서 부츠장관등 농무성 수뇌들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미일간의 농산물 무역의 안정화 대책을 협의한 결과 매년 소맥 300만톤, 대두 300만톤, 옥수수, 밀

사료곡물 800만톤등 1,400만톤을 향후 3년간 안정 공급해줄 것을 약속받았다. 이로서 일본은 수입곡물중 소맥 60%, 대두 90%, 옥수수, 밀, 사료곡물 80%라는 높은 수준을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毎日新聞에서>

## 계란수출

### 4천만개 감소

<덴마크>

작년도 덴마크의 계란수출은 73년도에 비해 4천만개나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덴마크시장의 몫을 프랑스가 영국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서독에 3천3백만개의 계란수출실적에서 무려 2배에 달한다. 6천8백만로 상승되었다. 이러한 독일

\* 양창욱 씨 : 학원사 농원 편집부.